

식생활 외부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최 현 숙[†]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Comparison of Dietary Externalization in Korea and Japan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Hyun-Sook Choi[†]

Division of Human Ecology, Yeungnam University, Daegu 712-74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etary externalization" mainly by using the economic and nutrition-related data, accompani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Modernization of food style" and other modernization have taken place, among which "Dietary externalization" in particular has recently drawn interest. At the time this paper clarified with econometric analysi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 of the modernization of food style and dietary externalization trend. The trends of Dietary externalization of both Korea and Japan were studi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ethod. The food subgroup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annual report o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and th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Japan. The statistical data from both country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Korea, the ratio of carbohydrates in the total calorie intake is quite high and animal protein is rather low compared to those in Japan. 2. Traditional food such as grains and vegetables are consumed much more in Korea than in Japan. 3. The Principal Component 1, 2 were extracted in both countries during the whole analysis period, which suggested the "Dietary externalization" 4. Principal Component 1 has a positive factor loaded in all food items including meals outside the home and process food. In other words, it is apparent that the "Dietary externalization" trend in Korea has a simple pattern suggesting that all externalization related items are on the rise. 5. Principal component 1, 2 which indicated the dietary externalization, were detected in Japan.

Key words : Dietary externaliz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서 론

경제 발전에 따른 1970년 후반 한국의 식생활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의 근대화로 주목되었다. 식생활의 근대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종래의 소비자 수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던 곡류는 최근 25년간 식료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외식,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의 외부화 품목은 2003년에는 72%까지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식비는 가정의 식료품 비중 최대 지출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990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배경의 요인은 소득의 상승, 사회 환경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식료품의 소비자 수요면의 선택에 있어서도 식생활 외부화는 점차적으로 진전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일본은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소득 상승에 따른 식료품비의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패전이후 식생활의 근대화가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베를 봉괴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억제형의 절약형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계지출항목 중에서 소비자 자신이 노력해서 절약이 가능한 항목은 필수성이 강한 식료품이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외식비는 2003년 17.3%로 최대 지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생활의 외부화는 70.6%로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식생활 외부화 실태를 주

[†] Corresponding author : Hyun-Sook Choi, Tel : +82-53-793-6824, Fax : +82-53-793-6824, E-mail : 854choih@hanmail.net

로 기준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식생활의 외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논점은 한일 양국의 식생활 외부화 실태를 기준의 경제면, 식품 공급량에서 비교 검토 하며, 식생활 외부화의 차이가 나는지를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있어서 식생활의 외부화는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일본은 총무청 「가계조사연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전 도시 전 가구의 외식과 가공 식품 항목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단, 가공 식품 항목은 식료품비의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에서 가공 식품 만을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단독 분석(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비교하였다. 단, 주성분 모델의 정식화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 계열을 가진 경우만을 선택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비교 대상의 선정이유

일본을 비교 분석한 것은 한국과 역사적, 지리적, 기후, 풍토 등 비교적 유사성이 많고 옛날부터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식생활 문화면에서도 공통점이 많은 것을 고려해 비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본 연구의 이용 자료는 한국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및 「물가연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이고, 일본은 총무청 「가계조사연보」 및 「소비자물가지수연보」, 농림수산대신관방조사과 「식료수급표」이다. 실증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의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및 「물가연보」와, 일본의 총무청 「가계조사연보」 및 「소비자물가지수연보」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1년마다 전국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가계의 소득, 가계 지출 등 가구의 생활 실태에 관하여 파악하는 종합적인 자료이다. 분석 항목은 양국의 「도시가계연보」(일본은 「가계조사연보」)에서 기준으로 하는 전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단, 일본은 인구 5만 이상의 전 가구)의 곡류, 육류, 어개류, 유란, 야채·해초,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과실, 외식, 기타 식료품(다양한 원료가 혼합되어 항목 분류가 곤란한 제품 및 기타 식품 서비스)이고, 일본은 곡류, 어개류, 육류, 유란, 야채·해초, 과실, 유지·조미료, 과자류, 조미식품, 음료, 주류, 외식이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식생활 외부화 실태를 분석하고, 경제 발전에 따른 식생활 외부화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주로 기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 기법과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비교 분석 대상기간은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AS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경제측면에서 본 식생활 외부화의 한일 비교

Fig. 1~2는 식생활 외부화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통계청(일본은 총무청)에서 발행된 도시가계연보(일본은 가계조사연보)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화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구성 비율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일 양국의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Fig. 1~2), 곡류는 한국에서는 1975년의 46.3%에서 2003년의 8.7%로 대폭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1975년의 13.9%에서 2003년의 7.7%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곡류 구성비의 대폭적인 감소는 분석 기간 중 경제 발전에 의한 1인당 소득 상승 및 외식 등의 지출액이 크게 상승한 것을 반영한다. 육류 구성비는 분석 기간 중, 양국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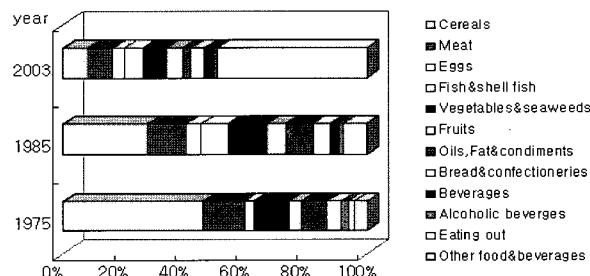


Fig. 1. Annual change in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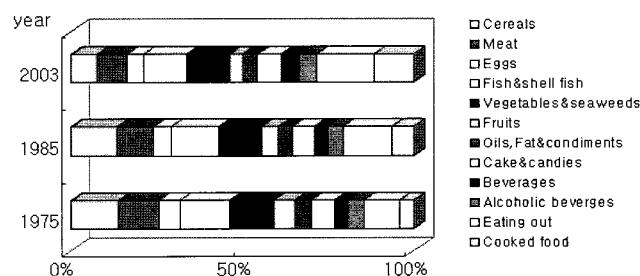


Fig. 2. Annual change in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Japan).

의 육류 구성비는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쇠고기보다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2001년 수입량 102,170ton) 및 닭고기 등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 관계로 식료품 지출액에 차지하는 육류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주목할 것은 한국의 주류 구성비를 보면, 분석기간 중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일본보다 낮은 구성비를 보여, 건전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의 사회화를 대표하는 외식비의 구성비는 양국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한국 49.8%, 일본 16.7%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의 외부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2002년의 월드컵대회 등 국제적 행사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외식 기회의 증가와 함께 누구나 외식을 즐기는 일상적, 편리 목적을 가진 식생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한일 양국의 식생활 외부화율([가공식품비]+외식비)/식료품비)을 나타낸 것이다. 식생활 외부화 중에서도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율을 보면, 특히 한국은 1975년의 2.1%에서 2003년의 72.0%로 이 기간 동안 약 34배나 현저한 증가를 보여 조리 주체가 가정에서 가정외부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패스트푸드와 더불어 짬밥, 도시락 등의 테이크아웃식품, 피자 택배와 같은 중식부분도 크게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Lee & Choi 2005). 또한 일본의 경우 외식비율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조리식품을 포함한 외부화 비율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60~7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찍부터 여성들의 사회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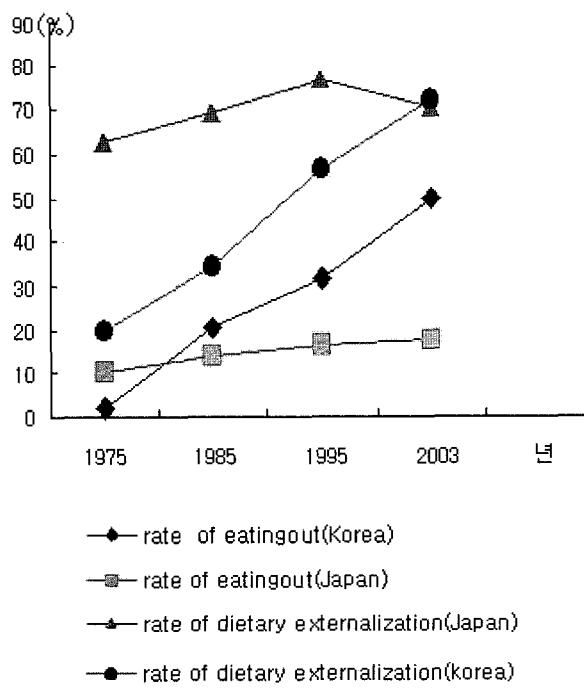


Fig. 3. Ratio of dietary externalization.

(1975년 45%) 증가와 더불어 조리식품의 발달(주식적 조리식품: 도시락, 냉동조리식품, 빵, 기타 조리식품(고로케, 사라다, 튀김, 햄버거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2. 식품 공급량에서 본 식생활 외부화의 한일 비교

Fig. 4~5는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양국은 분석기간 중 양적, 질적으로 식품 공급량이 크게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곡류는 분석기간 중 양국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1인당 곡류 소비량은 한국은 433.0 g, 일본은 265.9 g으로 한국은 일본의 1.6배나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급량 기준열량(2001년)을 보면, 2,994 kcal로서 이 중 탄수화물에 의한 열량은 61.4%를 감안한다면, 이 열량 중 무려 58.7%가 주식인 쌀의 대량 소비에 의해서 공급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쌀 생산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하며,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 점차적으로는 감소할지 모르나, 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은 유지되리라 본다. 또한, 육류, 계란류, 우유류 등의 축산물 소비는 양국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계란류, 우유 제품의 소비량은 한국보다 일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육류 소비량은 분석기간 중,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그 소비량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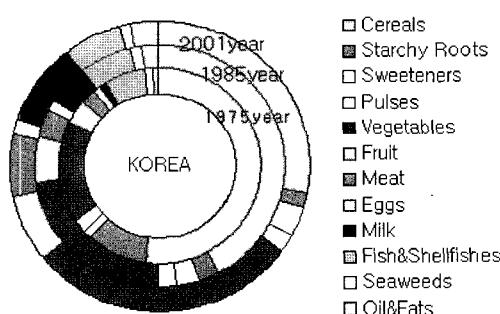


Fig. 4. Comparison of food supply per capita Per day(unit: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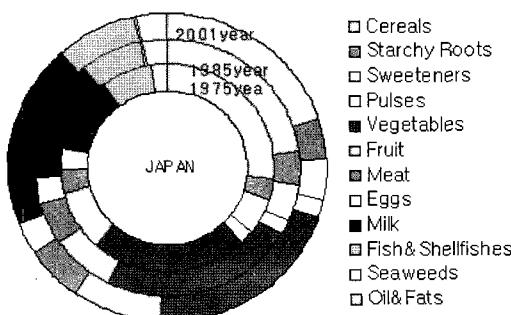


Fig. 5. Comparison of food supply per capita Per day(unit: g).

세이다. 설탕류는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열풍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설탕의 등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1년 야채류 소비가 곡류 소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야채 소비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쌈김치 등을 포함한 김치 관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개류는 일본 특유의 회중심 식문화의 영향으로 1인 소비량은 분석기간 중, 한국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유지류는 양국 모두 외식 및 조리 식품 등의 증가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식생활의 외부화로 인하여 양국은 곡류 소비는 감소하는 한편, 유제품을 비롯한 유지류, 육류, 야채류 등의 소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김치 관련 문화와 더불어 육류 소비 문화에 힘입어 1인당 야채류 소비량이 곡류 소비량보다 많고 일본의 1.6배나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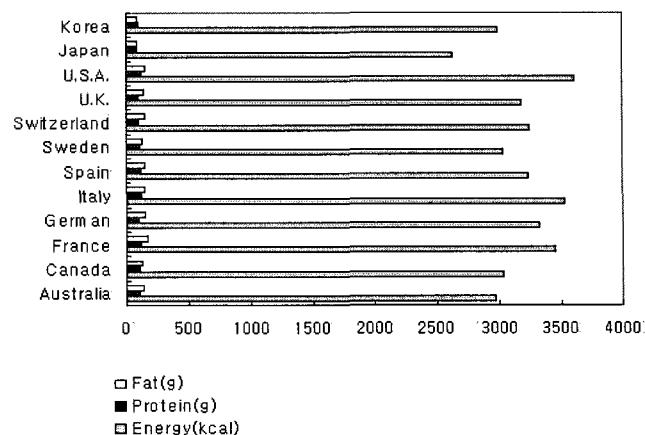
3. 공급 열량의 국제 비교

2001년의 1인당 공급 열량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3,000 kcal를 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2,994 kcal, 2,630 kcal로 3,000 kcal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은 1인당 소득 수준(31,326 달러)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열량이 작은 체격, 적게 먹는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적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소득 수준(10,003 달러)은 비교적 낮으나, 탄수화물의 공급 열량 비율이 61.4%로 제일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급 열량 중 탄수화물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습관 문화에 의거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단백질의 공급량을 보면, 일본은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급 열량을 국제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적정 비율(단백질 12~13%, 지방 30%, 탄수화물 57~68 %)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의 탄수화물의 열량 비율은 대체로 낮으며, 지방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비만, 고혈압 등의 건강상 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2001년 현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공급 열량비의 적정 수준을 보여 공급 열량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다이어트 식품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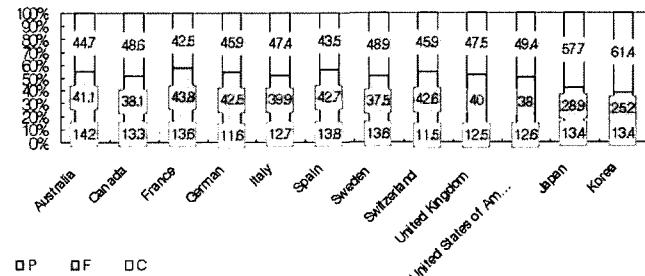
4. 주성분 분석 결과의 한일 비교

한일 양국의 식생활 외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화폐 금액으로 표시된 도시가계연보(일본은 가계조사연보)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측 결과를 보면(Table. 1~2), 한국에서는 제1주성분은 약



Source : Korea National Rural Economic Institute "Food Balance Sheet"(200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Food Balance Sheets"(2001)

Fig. 6. Comparison of the nutrient supply per capita per day by nation.



Source : Korea National Rural Economic Institute "Food Balance Sheet"(200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Food Balance Sheets"(2001)

Fig. 7. Comparison of the PFC by nation(unit : %).

80%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항목의 인자 부하량 제곱의 합계인 공통성도 조미식품(0.609)을 제외하면, 0.8 이상의 양호한 계측 결과로 나타났다. 제2주성분 역시 약 91%의 누적 기여율과 0.9 이상의 양호한 공통성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공통성은 전체적으로 음료(0.495)를 제외하면, 0.7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제1주성분은 곡류(-0.76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플러스 0.9 이상의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어, 전형적인 양극형의 주성분(bipolar factor pattern)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제1주성분은 경제 발전에 따른 1인당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종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적 식품의 감소와 간편식을 포함한 외식과 유지류의 급격한 증가 등 전형적인 양극형의 외부화 식품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2주성분은 주류(0.881)와 음료(0.923)에서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보여, 식생활의 외부화

Table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Korea)

Item	Factor 1	Factor 2	Communality
Cereals	-0.763	0.415	0.755
Meat	0.965	0.237	0.987
Eggs	0.964	0.029	0.930
Bread & confectioneries	0.957	0.248	0.978
Beverages	0.951	0.299	0.994
Fruits	0.940	0.313	0.981
Fish & shell fish	0.938	0.325	0.985
Vegetables & seaweeds	0.934	0.324	0.978
Eating out	0.893	0.398	0.955
Cereals	-0.763	0.415	0.755
Oils, fat & condiments	0.763	0.133	0.609
Alcoholic beverages	0.321	0.881	0.880
Other food & beverages	0.131	0.923	0.868
Eigenvalue	9.560	1.337	
Contribution(%)	0.797	0.111	
Cumulative contribution(%)	0.797	0.908	

Table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Japan)

Item	Factor 1	Factor 2	Communality
Eating out	-0.994	0.032	0.969
Meat	0.971	-0.109	0.955
Cooked food	0.963	0.229	0.979
Cereals	0.937	-0.242	0.937
Fruits	0.937	0.216	0.925
Fish & shell fish	0.888	-0.086	0.796
Eggs	0.875	0.414	0.936
Alcoholic beverages	-0.847	0.107	0.729
Oils, fat & condiments	0.808	0.443	0.848
Cake & candies	-0.343	0.833	0.812
Beverages	0.287	0.642	0.495
Vegetables & seaweeds	0.121	0.857	0.750
Eigenvalue	7.733	2.398	
Contribution(%)	0.644	0.200	
Cumulative contribution(%)	0.644	0.844	

식품군 중 저장성, 보존성 등의 가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가공タ입의 외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제1주성분을 보면, 외식(-0.994), 조리식품(-0.963), 주류(-0.847)는 마이너스 인자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식품군은 0.8 이상의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어, 식생활의 외부화 형태는 한국과 다른 성숙단계를 넘어선 절약형 외부화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자류(0.833), 음료(0.642), 야채·해초(0.857)의 제 2주성분은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보여, 간편형 외부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주 먹는 간편식(예: 과자빵, 조리식품, 레타스, 야채·해초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한 식사 양식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주성분 분석의 결과를 보면, 품목별 선택은 각각 다르지만, 식생활의 외부화를 나타내는 제1, 제2주성분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도시가구(인구 5만 이상)를 대상으로 식생활 외부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존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면의 식료품 구성비를 보면, 곡류는 한국에서는 분석기간 중 경제 발전에 의한 1인당 소득 상승 등으로 1975년의 46.3%에서 2003년의 8.7%로 대폭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1975년의 13.9%에서 2003년의 7.7%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육류의 구성비는 분석 기간 중, 양국은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2003년의 육류 구성비는 8%대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쇠고기보다, 값싼 수입산을 포함한 돼지고기 등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 관계로 식료품 지출액에 차지하는 육류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양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한국 49.8%, 일본 16.7%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식생활의 외부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외식 비율은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조리 식품을 포함한 외부화 비율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60~7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찍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 더불어 조리식품의 발달(주식적 조리식품: 도시락, 냉동 조리식품, 빵 등, 기타 조리식품: 고로켓, 사라다, 튀김, 햄버거 등)에 기인 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을 보면, 곡류는 분석기간 중 양국 모두 감소하였으며, 2001년의 곡류 소비량은 한국은 일본의 1.6배나 되었다. 육류,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 소비는

양국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란, 유제품의 소비량은 한국보다 일본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육류 소비량은 한국 고유의 불고기, 갈비, 삼겹살 등 식생활 습관이 남아, 분식기간 중 일본의 1인당 소비량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은 2001년 야채류 소비가 곡류소비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쌈김치 등을 포함한 김치 관련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국제 비교에서 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공급 열량을 보면, 2001년의 1인당 공급 열량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국가는 3,000 kcal를 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3,000 kcal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1인당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높음에도 공급 열량은 적은 반면, 한국은 소득 수준은 비교적 낮으나, 탄수화물의 공급 열량 비율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적정 비율(단백질 12~13%, 지방 20~30%, 탄수화물 57~68%)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의 탄수화물 열량 비율은 대체로 낮았으며, 지방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제1주성분은 약 8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공통성도 조미식품(0.609)을 제외하면, 0.8 이상의 양호한 계측 결과로 나타났다. 제2주성분 역시 약 91%의 누적 기여율과 0.9 이상의 공통성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공통성은 전체적으로 음료(0.495)를 제외하면, 0.7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제1주성분은 곡류(-0.76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플러스 0.9 이상의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제1주성분은 종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적 식품의 감소와 간편식을 포함한 외식과 유지류의 급격한 증가 등 전형적인 양극형의 외부화 식품군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제2주성분은 주류(0.881)와 음료(0.923)에서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보여, 식생활의 외부화 식품군 중 저장성, 보존성 등의 가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가공 타입의 외부화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제1주성분을 보면, 외식(-0.994), 조리식품(-0.963), 주류(-0.847)는 마이너스 인자 부하량을 보였으며,

그 외 식품군은 0.8 이상의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어, 베를 봉과 이후의 장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 억제형의 절약형 외부화가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의 제2주성분은 과자, 음료 등에서 플러스 인자 부하량을 보여, 간편형 외부화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품목별 선택은 각각 다르지만, 식생활의 외부화를 나타내는 제1, 제2주성분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외식, 가공식품을 비롯한 간편식 중심으로 한 식생활의 외부화는 앞으로 더욱더 진행될 것으로 보아, 외식산업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와 가공 식품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현

- Choi HS (1998) Comparative analysis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 and Japan. *J Home Economics Japan* 49: 749-759.
- Choi HS (1999) Structural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of dietary externalization in Korea. *Home Economics Assoc Nara Women's University* 45: 194-200.
- Han JS, Hong JH, Suh BS, Byon JO (2001)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Kimchi.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 44-59.
- Lee EJ, Choi HS (2005) A study on the change of food service industry and pattern of dietary externalization in Korea. *Korean J Hospitality Administration* 14: 355-367.
- Woo KJ, Hong SY, Chyun JH, Kim YA, Choe EO (1999) The perception and concern of parents about elementary school lunch service in Incheo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0: 208-220.
- 今村幸生編著 (1996) 新食糧經濟學. ミネルヴア書房.
- (2005년 11월 28일 접수, 2005년 12월 23일 채택)